목 차

토론광장 취지 2
대회사 4
토론광장 개요 6
추진 일정 7
주제도서, 저자 소개 8
토론방식 소개 9
토론광장
- 광장 일정 10
- 참가팀 소개 11
- 개회식 13
- 저자와의 북토크
- 토론광장 이모저모 14
- 사전 질문(공감) 16
- 심화 질문(소통) 17
- 100자 소감문 19

저자 후기 42
운영위원 후기 43
운영위원회 46
주관 단체 소개 47

‘2020 제7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을 준비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2020년 11월 7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2020 제7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토론광장’**을 개최합니다. 인천국어교사모임, 인천책놀이교사모임 책친구, 학교도서관을사랑하는사람들 모임이 같이 준비한 광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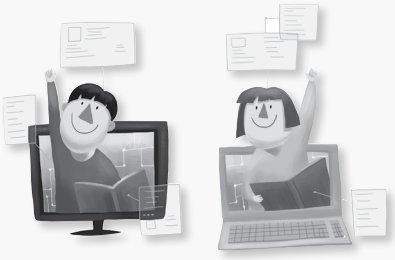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오프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에 일정을 연기하면서 많은 논의와 고민을 모아서 제7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을 준비했습니다.

인천의 청소년(고등학생) 독서단체를 대상으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토론의 전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은 우리의 책 읽기 풍토나 교육 현실에 비추어볼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은 청소년들이 책 읽는 사람, 질문할 줄 아는 사람, 토론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생각의 힘을 기르고,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일,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일, 세상을 넓게 보면서도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일, 가치를 창조하고 그 의미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은 어떤 기능, 기술보다 소통과 나눔, 생각과 실천 등을 더욱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경쟁적 방식이 아니라 비경쟁적 방식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넷째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은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학문인 인문학이 근원적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듯이 이 광장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광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담아 올해의 주제는 **'세계시민으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양한 질문을 던져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운영위원들은 의견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올해의 주제 도서로 공윤희, 윤예림의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1권**을 선정했습니다.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경쟁 방식의 독서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토론 방식을 선택한 생각의 바탕에는 **"지식과 지혜가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 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질문하는 힘,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는 태도, 처음 보는 사람과도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광장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발전된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 제7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운영위원회

대 회 사

도성훈 교육감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학생 여러본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인사말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 행사에 참석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의 주제는 <세계시민으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전문가만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서로 생각을 나눠보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서부터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에너지 등 많은 문제가 개별국가만이 아닌 전세계인이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 경제나 과학기술 발전 논리를 넘어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꺼이 토론광장에 참석해주신 공윤희 작가님과 오프라인 운영을 위해 애쓰신 모든 선생님과 관계자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 회 사

오경종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

제7회 인문학 토론대회에 참가하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불가능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느라 노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사회 경제적 위기와 유래를 찾기 힘든 최장기 장마와 강우로 산불로 인한 지구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자연 대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 환경운동가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귀담아 듣지 않았었죠.

제7회 인문학 토론대회 오늘 우리가 선정한 도서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이다'를 선정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게 잘 선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자연 환경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성평등 문제와 소득불균등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 그리고 향후 닥칠 식량 문제 등등 참으로 많은 사회 문제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를 물어야 하고, 양의 문제보다 질의 문제로, 소수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혜택 받는 그런 지구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성·환경·노동·차별·혐오 등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인문학 토론대회에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광장 개요 ♣

대 회 명 : 2020 제7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주　　제 : **세계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주제도서 :

분　야	책 제목	저　자	
인문철학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공윤희, 윤예림	공윤희 (세계시민교육 보니따 대표)

일　　시 : 2020.11.07.(토) 10:00~12:40

진행방식 : Zoom 활용 비대면 온라인 진행

참가단체 : 인천 고교 독서동아리 17개 팀

주　　최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주　　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국어교사모임,
인천책놀이교사모임 책친구, 인천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 추진 일정 ♣

2020.

5. 7 1차 준비회의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로 비대면, 비접촉 진행 논의, 토론광장 일정 및 장소 논의)

5. 26 2차 준비회의
(토론 주제 및 토론 도서 리스트 선정, 저자 섭외 논의, 준비 일정 및 장소 논의, 예산 편성)

5. 26 ~ 7. 24 저자 섭외, 장소 섭외

6. 12 온라인(카카오톡) 회의
(zoom활용 논의, 참가팀 규모 확정, 세부 진행별 시간 확정)

7. 7 3차 준비회의 (행사일 확정, 주제 도서 확정, 저자 섭외)

7. 23 4차 준비회의 (9.12 행사일에 맞춰 진행 사항 논의)

7. 24 작가 섭외 완료

7. 29 ~ 참가팀 모집 공고

8. 13 참가팀 선정 완료 (개별 학교로 발송)
팀별 주제도서 배부 (교육청 문서 수발)

8~9월 동아리별 활동 (책 읽기, 질문 만들기)

8. 19 5차 준비회의 (코로나 19로 행사일 재확정 논의)

10. 20 6차 준비회의 (행사 진행 세부 일정 및 운영계획 확정)

10. 23~10.29 팀별 사전 질문 제출 (팀별 질문2개씩)

10. 27 촬영팀 미팅 (주안영상미디어센터)

11. 03 토론광장 온라인 사전테스트 및 점검, 셋팅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스튜디오)

11. 07 2020 제7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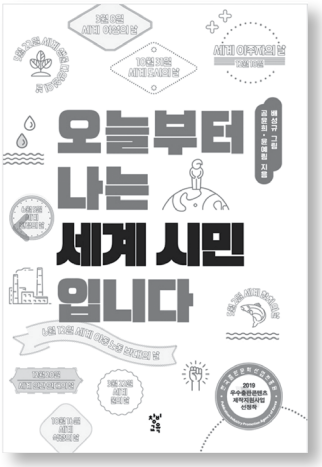
11. 16 평가회의

12. 21 행사 영상 youtube 업로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youtube)

♣ 주제도서 및 저자 소개 ♣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공윤희, 윤예림



초청저자 : 공윤희 세계시민교육 보니따 공동대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 공부하고, 한국교원대학교 졸업,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근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협력 업무 수행, 유네스코아태지역본부 근무

공윤희 동정이 아닌 공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세계시민

이 일에 대한 관심은 캄보디아 여행에서 시작됐다. '1달러'를 외치며 물건을 파는 아이들을 보며, '국가, 인종,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는 없을까?'하는 의문을 품었다. 답을 찾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하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나갔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 국제기구가 하는 일을 배우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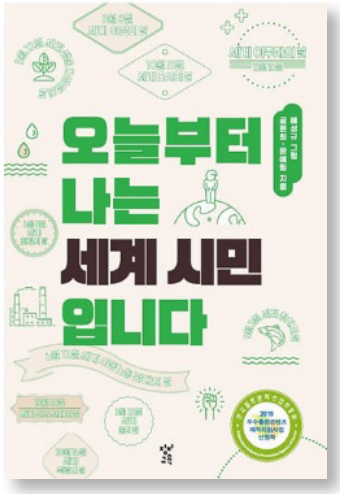
윤예림 나의 소비가 빈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는 세계 시민

호주로 밀입국을 하다 바다 위에서 목숨을 잃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세계를 움직이는 구조를 알고 싶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근무했다.

♣ 토론방식 소개 ♣

상호협력형 비경쟁방식 토론

어떤 기능, 기술보다 소통과 나눔, 생각과 실천 등을 더욱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승패를 가리는 토론대회가 아닌 참가한 구성원들이 같은 책을 읽고 거기서 질문을 만들어 내고,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고 그 질문에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내면서 생각을 더욱 깊고 넓게 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토론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함께 어울려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소중히 하는 토론 방식을 지향한다.



2020 제7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일정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장소 / 방식
1	09:30~10:00	30′	참여학교 온라인 접속 체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참여 학교
2	10:00~10:20	20′	개회사 및 대회 안내 참가팀 소개	Zoom 온라인 실시간
3	10:20~11:10	50′	저자와 함께 하는 북 토크 작가 주제 강연, 사전 제출 설문 저자 답변	
4	11:00~11:30	20′	동아리 자체 토론, 심화 질문 도출	
5	11:30~11:35	5′	심화 질문 온라인 제출	패들렛(앱)
6	11:35~12:20	20′	심화질문에 대한 초청작가 답변	Zoom 온라인 실시간
		25′	작가, 학생, 교사 등 양방향 질문과 답변	
7	12:20~12:40	20′	참가 소감 나누기	Zoom, 패들렛 병행
8	12:40~	–	마무리	–

참가팀 소개

연번	학교	동아리	학생				지도교사
1	강화여자고등학교	담장	고은서	이예진	정채원	한지유	김혜연
2	계양고등학교	우리는3반	김민석	김선규	김현일	이건희	김정미
3	명신여자고등학교	토읽반	김나영	김효민	신지솔	김예랑	남지미
4	부개고등학교	세바청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하지운	김윤수	남석민	홍승주	황윤아
5	부평여자고등학교	호모쿵푸스	황세정	선윤아	나승아	김도원	유수현
6	부평여자고등학교	책으로세상읽기	김도연	한소영	김효선	김경민	윤소영
7	숭덕여자고등학교	씨리얼 (SEE REAL)	권세진	김나영	임진송	조수현	허윤정
8	신명여자고등학교	신명지구인	김혜민	임수현	최민경	허지은	이영진
9	신송고등학교	리케이온	김도엽	김민성	배재윤	곽동준	한만웅
10	인천공항고등학교	GC	권예원	공현성	유지원	임수민	이태용 주홍성
11	인천남고등학교	젠가	정지훈	이승범	유동욱	김도빈	오은미
12	인천대건고등학교	모의유엔-1	배권호	정진호	조성현	장현진	이경임
13	인천대건고등학교	모의유엔-2	김민서	김병규	김지원	강송묵	이경임
14	인천여자고등학교	작사각형모양마름모	권예준	김예원	박나영	정재윤	한윤지
15	인천여자고등학교	세상을바꾸는시민들	라수연	서가은	연유진	손민서	안수경
16	인천영종고등학교	나비야	진윤이	서효림	이서혜	최민	박유진
17	인천해송고등학교	앙상불	김지우	송윤지	이승주	이하진	김의정

참가팀 소개

SEEREAL(숭덕여고)

나비야(영종고)

담장(강화여고)

모의유엔-1(대건고)

모의유엔-2(대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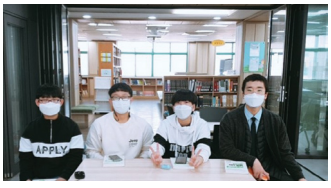
세바시(인천여고)

세바청(부개고)

신송고(리케이온)

양상불(인천해송고)

우리는3반(계양고)



젠가(인천남고)

GC(공항고)

지구인(신명여고)

직모마(인천여고)

호모쿵푸스(부평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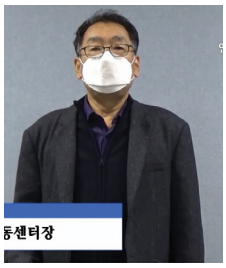
책으로세상읽기(부평여고)

토읽반(명신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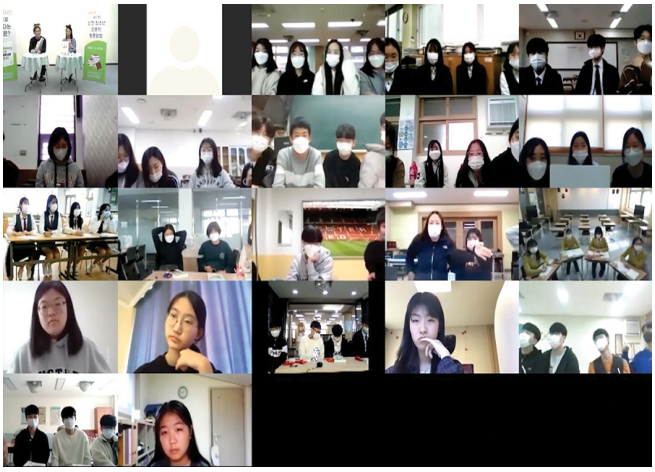
개회식

세계시민
으로
산다는
것은?
2020
제7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2020. 11. 07.
10:00~1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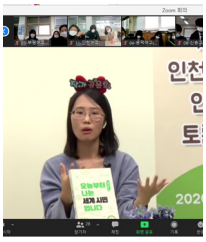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동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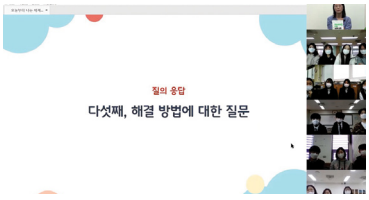
저자와의 북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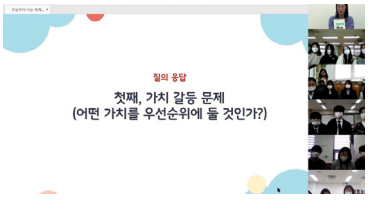


세계시민
으로
산다는
것은?
2020
제7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2020. 1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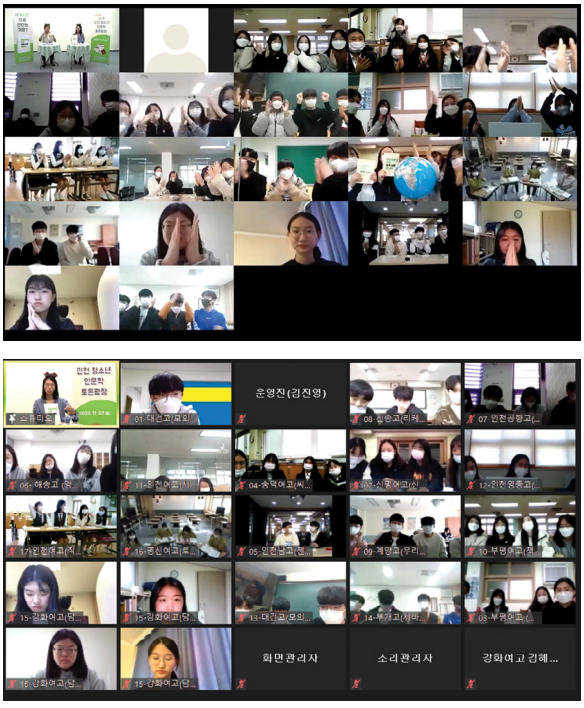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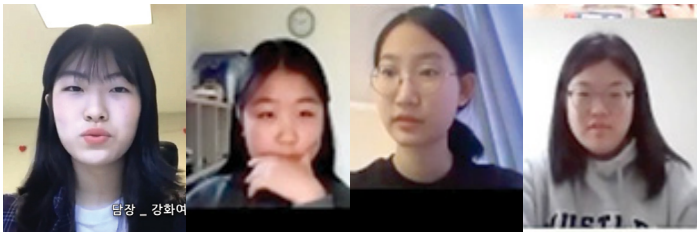
진행 - 이장우 선생님
박은여자고등학교


질의 응답
다섯째,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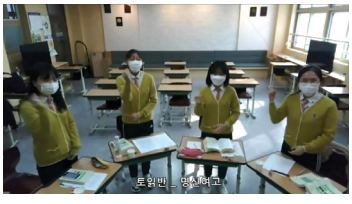

질의 응답
첫째, 가치 갈등 문제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토론광장 이모저모




담장 _ 강화여

모의유엔장 _ 대건고


토원빈 _ 양서여고

양상블 _ 해송고

사전 질문(공감)

저자에게 보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자에게 직접 듣고, 이에 대해 모둠원과 토론하여 새로운 질문을 다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저자와 대화하고 공감하는 과정이다.

질문 1.

지구 전체와 자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나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는 세계 시민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혹은 '나의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심화 질문(소통)

북토크(사전 질문 답변)에서 저자와 공감한 의미 있는 내용을 모둠원과 한 번 더 소통(토론)하면서 의미를 확산해보는 과정이다.

Zoom, 패들렛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작가, 학생, 교사 등 양방향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 선정 기준 : 다양한 분야, 많이 혼동하는 기준이나 가치에 관련된 질문(작가님)

- 해양쓰레기에서 가장 많은 것이 담배꽁초인데 담뱃값을 계속 올리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 현대식 농업방식으로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꿀벌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꿀벌을 살리기 위해 옛날의 농업방식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 어린이 인권을 우선시하면서 아동노동을 합법화하는게 정당할 것일까요?

- 현재 언론은 편파적으로 변해있는데 언론이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언론을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 재활용을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캠페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HIV와 같은 전염병은 개발과 세계화가 만든 결과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HIV 전염병 외에도 개발과 세계화가 일으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나 성평등 문제에는 더욱 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가 옳다고 봐야할까요?

- 공정무역과 친환경 상품의 가격문제로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케냐의 한 회사가 적정 기술을 잘 활용하여 모바일 결재를 활성화시켰다고 책에서 봤는데요, 비록 정보화 시대라 적절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빈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개도국에서 인터넷 보급이 과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padlet

♡ 복제 공유 ⚙ ···

2020 제7회 인천청소년인문학토론광장

작가님과 더 깊이 나누고 싶은 질문은?

16-명신여고(토읽반)

1) 57쪽 내용 중 -HIV 감염인을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0명중 9명에 달하는 수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그렇다면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야하는가?

2) 이 책 76쪽 마지막 내용에서 -바이오 에탄올이·휘발유를 사용할 EO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나 더 많고, 식량 부족 현상을 일으킨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기술가정 책에서는 바이오 엔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지않고 권장하는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의 차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277쪽을 보시면 이 책에서는 '차별의 날'놀이를 진행했을 때 밑에서 4번째 문장에서 '열등한 집단이 우월감과 자신감을 맛보며 즐거워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차별을 먼저 경험한 푸른 눈의 아이들은 '우월한' 집단이 되어서도 '열등한' 갈색 눈의 아이들에게 훨씬 더 너그러웠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 작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윌리엄 피터스의 푸른 눈, 갈색 눈*

4)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댓글 추가

부개고(세바정)

1. 직업을 여러번 바꾸셨는데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2.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나 성평등 문제에는 더욱 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가 옳다고 봐야할까요?

3. 경제적 문제같은 다른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인권향상을 옳다고 봐야하나요?

4. 몰디브 같은 나라의 경우, 관광으로 나오는 수입이 정부를 지탱해주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관광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댓글 추가

인천여고(세바시)

작가님이 예로 드셨던 특수학교 설립과 같은 사례를 비롯해서 인류보편의 가치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많이 있을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미워해도 될까요?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생존본능에 따라 이익을 선택하고자 하는 걸텐데요...

댓글 추가

해송고(앙상블)

1. 현재 언론은 편파적으로 변해있는데 언론이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언론을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2. 성평등의 본보기인 노르웨이처럼 우리나라도 엄격한 법으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까요?

3.케냐의 한 회사가 적정 기술을 잘 활용하여 모바일 결재를 활성화시켰다고 책에서 봤는데요, 비록 정보화 시대라 적절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빈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개도국에서 인터넷 보급이 과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4. 과도한 이상주의는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 하진 않을까요?

댓글 추가

인천영종고 나비야

아동노동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무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공정무역이 경제과고 관련하여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사로 커피를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구매하자 현지에서 커피가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을 본 농부들이 기존의 품목을 커피로 대체했고 이로 인해 커피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정무역은 공정적인 면이 더 크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공정무역을 실행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댓글 추가

계양고(우리는3반)

1.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후회되는 순간은 없었나요?

2.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다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댓글 추가

대건고 모의유엔-2

1. 해양 속 미세플라스틱 양의 증가를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2. 태평양 쓰레기 섬을 축소시키거나 제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나요?

댓글 추가

요?

댓글 추가

부평여고(호모룽푸스)

1. 과학기술의 발달로 AI가 개발되고 이를 활용한 로봇, 자율자동차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로봇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2. 현대식 농업방식으로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꿀벌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꿀벌을 살리기 위해 옛날의 농업방식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3. 양식장을 설치한다면 주변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있나요?

4. 최근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문제가 큰 화두에 올라있는데, 실생활과 관련되어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해양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을 줄이기 위한 해결법은 무엇인가요?(단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다 말고요...)

5. 선생님이 보니따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보니따에서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시나요?

6. 아동노동문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화되었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은 공정거래뿐이며 공정거래를 통해 노력하고있지만,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추가

강화여고-담장

1. 국가간의 경제적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2. 학교안에서 자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캠페인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캠페인이나 시위를 했을 때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까요

3. 국가 간의 관계회복이 우선시 될 경우 세 세계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4. 양성징병제에대해 찬성하시나요? 양성빙병제를 실시하게되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성차별(임금차별,범죄율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추가

인천공항고 GC(Global Citizen)

1.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2. SDPs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해주실 만한 책이 있으신가요?

3. 젠트리피케이션을 없애고 낙후된 도시를 발전시켜낸 사례가 있나요?

4. 우리나라에서 생태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작가님의 신념은 무엇인가요?

6. 작가님의 신념대로 활동하시면서 마주하게 된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거나 해결하셨나요?

6. 플라스틱 없는 슈퍼마켓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추가

요?

댓글 추가

대건고 모의유엔-2

1. 해양 속 미세플라스틱 양의 증가를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2. 태평양 쓰레기 섬을 축소시키거나 제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나요?

댓글 추가

숭덕여고-씨리얼

1.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무지한 기성세대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요??

2. 소위 착한기업이라 불리는 윤리적 기업의 경영 방식과 이들의 상업 아이템이 특정 계층이나 수도권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앙크르와트와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이들의 노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아동 노동이 교육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나오며 국제사회적으로 아동이 판매하는 물건이나 기념품 등을 구매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 물건을 구매해 주는 것과 교육권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구매를 하지 않는 것 중 어떤 의견을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추가

01-대건고(모의유엔-1)

1. 일본 카미카스 마을을 책에서 예로 들으셨는데 카미카스라는 마을과 같은 쓰레기 제로 프로젝트를 전세계적으로 실시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2. 해양쓰레기에서 가장 많은 것이 담배꽁초인데 담뱃값을 계속 올리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있을까요?

3. 환태평양 지역에 쓰레기섬이 몰려있고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 쓰레기 섬을 나라로 지정한다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쓰레기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생수 1리터당 평균 325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내용이 책에 적혀있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기대할 순 없을까요?

5.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순위가 별로 높지않은데 이 수치를 높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6. SDGs가 2030년에 달성을 못한다면 그 다음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할까요?

댓글 추가

신명여고(신명지구인)

1. 보니따를 만든 이후 마주한 사회 장벽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공정무역과 친환경 상품의 가격문제로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추가

인천여고(세바시)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나 진단시약 확보 등,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국가간 장벽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도 세계협력의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백신은 공공재가 되어야할까요?

댓글 추가

인천여고(직사각형마름모)

1. 나와 다름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생각하거나 대우한적이 있는데 작가님은 그러지않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2. 바이오스피어2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어스피어3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바이오스피어3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바이어스피어3를 찾아나서실건가요 바이어스피어1를 보존하실건가요?

3. 평등한세상을 만들기위한 출발선은 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정할 수 있는 차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4. HIV와 같은 전염병은 개발과 세계화가 만든 결과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HIV 전염병 외에도 개발과 세계화가 일으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댓글 추가

인천남고(젠가)

1. 어린이 인권을 우선시하면서 아동노동을 합법화하는게 정당할 것일까요?

2. 미래의 과할기술은 환경을 위해서 발전해야할까요?

3. 봉사 단체가 있는데 정말 운이 안좋은 경우 사기단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걸 골라낼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댓글 추가

신송고(리케이온)

1. 서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간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는데, 사계화가 이상적인 방안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을까요?

2. 인권과 복지에 관련된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실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3. 미세플라스틱을 배출시키는 80%의 줄저가 옷과 같은 섬유라고 하셨고, 이러한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환경 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은 환경호르몬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옷의 섬유나 옷감을 보다 미세플라스틱이 아노지않는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 추가

부평여고(책으로 세상 읽기)

1.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은 환경보존 가치보다는 경제발전에 더 가치를 둘텐데 선진국의 도움을 얻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카미카스 마을에서는 48개의 분리수거함을 두어서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3. 환경보존을 위해 국가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야하지 않을까요?

4. 손바닥 헌법책을 읽으시며 헌법 읽기 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조항과 그와 관련된 사례가 있으신가요?

댓글 추가

+

송윤선 + 38 • 2개월

인천청소년 인문학토론광장 (참여소감문)

2020년 제7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참여 소감문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

신명여고(신명지구인)최민경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 먼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일상에서 놓쳤던 사회문제와 몰랐던 국제문제를 알게 되면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되고 사회 문제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작가님이 언급한 아동 노동 문제와 성평등 문제가 가장 인상 깊었다. 작가님의 답변 대부분이 우리가 폭넓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 해주셨다. 먼저 아동 노동 문제를 합법화하자 • 불법화하자를 따지기 전에 그들의 부모님의 직장에서 생활비를 보장 받으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답변과 성평등 문제를 바라볼 때는 남여가 분리 되는 것이 아닌 그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답변을 듣고 이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좁았던 시각을 반성하게 되었다. 세계적 문제들을 다른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보통 책을 읽고 책을 쓴 저자와 직접 대화를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 기회가 감사하고 뜻 깊었다.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질문들이 나와서 내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먼저 우리 학급부터 바뀌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해시태그 첼린지를 이용해 급식 비우기 활동을 계획 중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우리에게는 태풍으로 온다' 말 처럼 비록 이 활동이 작아보여도 내가 속해있는 학급에서 학교 주변학교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며 다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발전하는 기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나 혼자라는 생각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아는 사람인 내가 알려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

♥ 1

댓글 추가

부개고(세바청)

명신여고(토읽반)

김나영 : 이 책을 읽고 난생 처음 알게된 기념일과 각종 세계의 문제점 등을 알게 되었다. 쉽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부터 처음 접하게 되어 새로웠던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작가가 작성한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파트는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였다. 다큐멘터리나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에서 책에서 나온 유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볼 때 느꼈던 안타까움은 딱 그 순간에만 존재할 뿐 오래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제일 반성을 많이하고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부분이었다. 평소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나는 책을 읽으면서 나의 개인적인 인식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는 산산조각이 났다.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정책이 있었을뿐더러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많아서 그렇게 느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 책은 이런 문제를 알고도 개선하지 않는 정부(나라)를 비판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다. 나는 계속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내 시점으로 읽었을 때 느꼈다. '아, 나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채 살아간 국민들 중 하나일 뿐이구나..'
하루 아침에 이런 세상이 개선되는 건 어렵다. 하지만 작가가 말했듯이 내가 바뀌면 오늘이 바뀌고, 오늘이 바뀌면 내일이 바뀐다고 한다. 하루빨리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

김효민: 이 책은 표지에서부터 여러 세계 기념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지에 내가 알고 있던 세계 기념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부분에서 나는 '내가 사회에 많이 무관심하구나.', '나는 세계 시민의 '세' 자도 만족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가 사회에 대해, 세계에 대해 아직 제대로 아는 것이 없으니 이번 독서 토론 기회를 통해 사회에 대한 성숙한 생각을 지니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세계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책에도 나와 있듯이, 환경 보존은 우리가 꼭 해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차별받고 있을 누군가들을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마지막 챕터에서 나오는 '서명 한 장이 4,000달러의 값어치를 한 셈이다.'라는 부분을 보며, 나도 서명 사이트에 서명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부평여고 (호모쿵푸스) 선윤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점이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책을 읽고 작가님의 강의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있던 문제부터 잘 알지 못했던 문제까지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잘 알게 되기도 하였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까지 듣게 되어서 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내용이 더욱 깊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해 단순히 이러한 해결방법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에 대해서만 고민했는데, 단지 그것뿐만이 아닌 더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하고 더 넓은 상황과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과연 이런 작은 방법으로 뭔가가 달라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작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0

댓글 추가

신명여고 (신명지구인) 허지은

코로나로 인해 작가님과 다른 학교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하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라는 말이 좀 더 많이 들리는데요 나부터 한다고 뭐가 바뀔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나의 가치관 하나로 한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작가님과 다른 학교 친구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뭔가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또 질문을 갖게 되고 또 다른 해결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꿈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세계시민으로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책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댓글 추가

부개고(세바청)

0

댓글 1개

익명 2개월
하지윤 : 작가를 책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온라인으로나마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었다. 세계적인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것들을 신경써야 하는지, 어떤 시각이 있는지 등을 짚어주셔서 이미 확신을 가진 세계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온라인이라 어색한 것도 불편했던 것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댓글 추가

부평여고 (책으로 세상 읽기) 김도연

인문학 독서 토론 광장을 통해 궁금했던 세계 문제와 해결방법 등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들을 수 있었고, 새롭게 배운 점들이 많아 좋았다. 우리학교에서도 환경보존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학교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학교문제를 알아보아야겠다. 성평등과 같은 다루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편견이나 혐오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세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나먼저 실천하고 노력해야겠다.

0

댓글 추가

인천남고(젠가) 유동옥

처음으로 인문학토론광장을 해보았는데 다음에는 온라인 토론이 아닌 오프라인 토론으로 만나보고 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도 만나서 좋았고 여러 학교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인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세계시민입니다 ㅎㅇㅌ!

0

댓글 추가

강화여고(담장) 고은서

일년 306일 중 여러 세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기념일로 정해둔 날이 이렇게까지 많은줄 몰랐고 책을 읽음으로써 세계가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

달라의 값어치를 한 셈이다.'라는 부분을 보며, 나도 서명 사이트에 서명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한 책을 가지고 내 친구들과, 선생님과, 다른 학교 학생들과, 또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즐거웠다.

송현서: 처음 책 표지를 보았을 때 책 안에 세계의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 각 날짜와 그 날짜에 해당하는 날이 써있는데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같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날과 달라 책 표지를 통해 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이 책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와 식량 부족 문제와 같이 평소 알고 있던 문제도, 여성 인권과 같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되뇌어 볼 수 있었다. 또 그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문제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처 모습과 제도를 비교하며 또다른 좋은 제도가 있는지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환경 문제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문제를 파악하여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끔한다. 나는 이 책에 나와있는 각 날들을 몰랐는데, 각 날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 문제를 통해 이 날들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우리나라가 환경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는 더 발전 시키고, 정당하지 않은 제도는 비판하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내가 생각한 실천 방안들 중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기로 다짐하였다.

신지솔: 나는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 입니다>를 읽고,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하는 부분들을 세계 문제에 대한 다른 책들처럼 강제적으로 알려주기 보다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환경이나 세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려주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더욱 꼭 실천을 통해 지켜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다양한 기념일과 몰랐던 사례들에 대해서도 알게되어 나를 세계 시민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책이 되었던 것 같다.

김예랑: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세계시민이란 단어를 보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는 달리 더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세계 시민이란 단어가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의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에서 잊어 나는 문제를 기억이 스스로 해

댓글 추가

부평여고(호모쿵푸스) 김도원

0

댓글 추가

부평여고 (책으로 세상 읽기) 김경민

세계 문제에 대하여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활동들을 통하여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라는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친구들에 다양한 생각들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 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세계 문제들에 대해 알아가고 내가 지금 세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추후에 내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캠페인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였고 앞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0

댓글 추가

인천남고(젠가) 이승범 소감문

처음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해 봤는데 매우 재미있었고 책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해 보고 싶고 작가님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도 읽었었는데 같은 작가님이라는것을 방금 알았습니다 ㅎㅎ 앞으로도 작품 활동이나 여러가지 하시는 일들 힘내시고 기대하겠습니다!!!

0

댓글 추가

김민성:이번 기회를 통해서

0

댓글 추가

강화여고(담장) 정채원

책을 읽고 여러 질문을 통해 깊이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된것같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조

100자 소감문

일년 306일 중 여러 세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기념일로 정해둔 날이 이렇게까지 많은줄 몰랐고 책을 읽음으로써 세계가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을 읽는거 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책에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읽은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나의 생각을 확장 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세계시민이라는 단어가 맘에 제일 다가왔다 내가 사는 작은 공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의 생활을 되돌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0

댓글 추가

패들렛 주소

https://padlet.com/songys501/mz1he0plz3udgbav

0

댓글 추가

계양고 우리는 3반

김민석: 책을 읽으면서 생겼었던 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받게 되어서 좋았고, 평소 아무생각없이 지나쳤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되는 계기가 되었다.이를 통해 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직접 참여하게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김선규: 평소에 눈 여겨보지않았던 의문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알게되어 좋았다. 세계를 바꾸기 위해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되었습니다.
김현일 : 저희는 지금까지 어려운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안락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알고는 있었으나 모른채했던 여러가지 세계의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노동에 관해서는 저와 또래, 혹은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 저도 해보지 못한 심한 강도의 노동을 했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이제부터라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약한 힘을 보태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희 : 평소에 교과서에서 배운 세계화에 관한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관한 문제들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기회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술 알았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는 달리 더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세계 시민이란 단어가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의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기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작가님이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윤리적인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끝날때마다 에이즈와 관련된 상품과 같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주거나 주제가 담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것을 알려주어서 좋았다.

10

댓글 추가

인천여고(직모마직마모) 정재윤

세계시민에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정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뚜렷한 정의를 알게 되어 뜻 깊게 느껴집니다!!!!1

1

댓글 추가

해송고 앙상불

우선, 관심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법과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목표에 알게 되어서 뜻깊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직접만나보고 싶습니다!

0

댓글 추가

강화여고(담장) 정채원

책을 읽고 여러 질문을 통해 깊이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된것같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조금 생소하기도 했지만 여러 학교 동아리들의 질문과 작가님의 답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시간이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 된 것 같다.

0

댓글 추가

인천여고(직모마) 권예준

진정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였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계를 위한 노력이 나 하나 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작가님은 그게 물론 세계를 위한 행동이지만 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신게 인상적이였습니다.

1

댓글 추가

대건고(모의유엔-2) 김병규

책을 읽다보면 당연하게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님께 직접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활동이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댓글 추가

신명여고(신명지구인) 김혜민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나 하나가 이렇게 한다고해서 뭐가 바뀌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랬던 나의 생각들은 이 책에 나오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보고 아, 나부터 시작해야 미래가 바뀌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변하였다. 내가 생각했던 세계는 좁은 세계였구나 라며 반성도 했던 것 같다. 또한 사회적 문제들의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닌 그 뒷 면까지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

.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흥을 못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귀찮다며 세계시민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이 한 명의 세계시민을 양성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나는 오늘부터 세계시민입니다!

2

댓글 추가

부개고(세바청) 홍승주

처음하는 토론 광장이었는데 작가님과 다른학교학생을과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재미있고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소개를 할때 여러직업을 가지셨다는 부분에서 신기했고, 대단하고 생각했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ppt와 화상통화를 열심히 준비하신 선생님들도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토론 광장이 연기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책 내용에서 오래동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여행 이야기"에서 몰디브의 역사와 히말라야를 짊어진 사람들 이야기는 나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 광장을 해보면서 나 스스로 세계시민이 되려면 더욱 노력해야한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난 상황으로 토론광장에 참여하여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0

댓글 추가

부평여고(책으로 세상읽기) 한소영

세계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방법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단 걸 깨달

부개고(세바청) 남석민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 입니다>를 읽으며 작가님이 책을 쓰실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번에 토론광장을 하면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단체에서 일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저한테 지금 세계에 어떤 문제가 만연해 있고 우리지구촌을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같습니다.작가님처럼 저도 꼭 여러나라에 존재하는 아동노동문제,환경문제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 추가

부평여고(호모쿵푸스) 황세정

0

댓글 1개

익명 2개월
어릴 적에는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을 행하려 노력했었는데, 해마다 커가면서 제 자신에 일에만 신경쓰기 바빠 세계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작가님의 책을 여러번 읽고 잊고 살았던 세계 시민 의식을 다시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문제를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책에서, 강연에서 말씀해주신 항상 내용 마음 속에 담아두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의미 깊은 책 써주시고 강연까지 준비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추가

신명여고(신명지구인)임수현

온라인으로 하는 인문학토론광장이라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즐거웠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작가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와 닿았고, 세계시민이 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 질문하는걸 보고 '나는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책을 더 꼼꼼히 읽고 심화적인 질문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활동을 두시간밖에 못 해서 아쉽고,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유익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2

댓글 추가

부개고(세바청)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질문을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평소 잘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에대해 생각해보고 책의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책 외부의 상황까지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 질문에 작가님이 해주신 대답을 들어보면서 책에대해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고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세계적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등해야하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책 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이야기나 프로젝트 등 여러 이야기를 통해 내가 앞으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여러 친구들의 생각과 질문들을 들으면서 한 주제에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서 제 견해를 더욱 넓힐 수 있게되었습니다. 좋은 책으로 유익한 토론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댓글 추가

부평여고 (호모쿵푸스) 나승아

코로나 19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살짝 아쉬었지만 작가님과 선생님들께서 노력해주시고 다른 학교 친구들 모두 협조하여 오늘의 인문학 토론 광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식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 생긴다는 것도 알았고 막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학우분들 수고하셨고 힘써주신 선생님들과 작가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댓글 추가

부평여고(호모쿵푸스)김도원

책을 읽고 책에 관해궁금했던 점 또는 더 확장시키고 싶은 지식들에 관해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뜻 싶은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작가님

부평여고(책으로 세상읽기) 한소영

세계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방법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단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나며 생기는 재활용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고 우리 집이나 우리 반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업사이클링 회사에서 만든 쓰레기자판기의 존재도 처음 알게 되어서 직접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이 되는 길이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두의 관심을 통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주제를 접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0

댓글 추가

인천남고(젠가) 김도빈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를 여러 학생들과 읽고 비슷한 주제로 작가님의 강의를 들은 후, 우리 학교 친구들과 토의를 하니까 독서 후 궁금했던 것, 작가와 친구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온라인이라는 조건에서도 여러 친구들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부터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디다!

0

댓글 추가

강화여고 담장 이예진

책을 읽고나서 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작가 선생님과의 만남도 가지고 직접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댓글 추가

인천여고(직모마 직마모)김예원

에 못 해서 아쉽고,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유익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2

댓글 추가

인천남고(젠가)정지훈

이번에 처음으로 토론 광장을 와봤는데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여서 조금 아깝고 다음엔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평소 몰랐던 사실을 알되어 너무 기쁘고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였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세계시민 세계시민들 모두 모두 파이팅!!!!!!!!!!!!!

0

댓글 추가

부평여고(책으로 세상 읽기) 김효선

에이즈 문제, 성평등 문제, 아동노동 문제 등 여러 지구적 문제들과 문제의 원인, 문제가 되는 이유 등을 책으로 읽고 토론하다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문제가 많았고 해결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경제발전과 환경 보존 중 어느가치를 더 우선시해야하는지, 인권과 경제발전 중 어느가치를 더 우선시해야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SDGs가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2030년에는 변화된 지구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계기로 저희 동아리도 학급 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주제를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입니다. 프로젝트가 확장되고 전세계인이 세계 시민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세계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윤리적 소비를 하고 캠페인 참여를 열심히 해서 꼭 세계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댓글 추가

김민성:이번 기회를 통해서

0

댓글 추가

부평여고(호모쿵푸스)김도원

책을 읽고 책에 관해궁금했던 점 또는 더 확장시키고 싶은 지식들에 관해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뜻 싶은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작가님과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과연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작가님 덕분에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 같고,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저는 작가님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 추가

인천여고 세바시

손민서: 인문학 토론 광장을 통해 우리가 책을 읽으며 고민했던 문제의 질문에 대한 작가님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했고, 재활용 회사인 '수퍼빈'이 만든 자판기도 새롭게 알게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유진: 오늘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들으며 관련 생각들에 더욱 심화되게되는 계기 되었으며 나 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같이 고민하는 기분이 들어 하나되는 기분을 느꼈고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겨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같은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가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앞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 어떻게 행동해야할 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지금 맡은 일로도 바쁘다고 세계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접하고 고민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에 한 문제정도 그문제에 대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 하나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세계시민이되기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라수연: 경제적 가치와 인권이 충돌할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듣기 전에는 나 자신만 세계시민적인 행동을 한다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천여고(직모마 직마모)김예원

이번 시간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며 궁금했던 점이 해결되었고 세계시민에 대해 조금 더 깊이있게 생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1

댓글 추가

강화여고 담장 한지유

책을 읽는것에서 그치지않고 질문하며 답변받는 시간을 통해 제가 사회문제에 무지했다는 것과 이것을 해결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알려주신데로 지구인들이 작은일부터 하나씩 실천해나가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더 살기좋은 지구를 만들수있다고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알ㄹㅕ주려고합니다.

0

댓글 추가

신송고(리케이온)

김민성: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 세계적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으로만 바라봐왔었는데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들을 봄으로써 그 동안의 시각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있음을 느꼈고 이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곽동준 : 책을 읽으면서 알고 있었던 세계의 문제들이나 더욱 알고싶었던 여러 소식에 대해 작가님과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이번 토론활동을 통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면모를 기를 수 있는 여러 지식과 생각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재윤: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사회적 이슈를 이번 책을 읽으며 경각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의응답 시간에 작가님께서 모두 해결해주셔서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 하나라도 세계시민의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김도엽 : 요번 기회를 통하여 평소 접하던 이슈들 또는 알지 못하건 이슈들에 대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해석,생각 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고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작가님과도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세계 시민으로서 한단계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댓글 추가

인천여고(직모마) 박나영

이번 세계시민 온라인 토론광장으로 조금 더 성숙한 세계시민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가님과 질문 질의응답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고있습니다 . 이번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라스틱 재사용 부분이 인상깊었는데요 , 나중에 교사가 되서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한번 자그만한 곳부터 실천해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론 더욱더 성숙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1

댓글 추가

영종고(나비야)

서효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윤리적인 소비자인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세계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면서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접하면서 모든 사람의 인격권이 존중되고, 환경보호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는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는 꿈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계시민의식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다짐을 했던 것 같다.
진윤이-
최민-

1

댓글 추가

습니다

0

댓글 추가

숭덕여고(씨리얼)

임진송- 세계시민으로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다양한 세계 문제에 대한 확답을 얻을 수 있어 굉장히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현- 기후변화나 성평등처럼 미디어매체에서 주로 다뤘던 주제들을 제외하면 세계적 이슈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세계시민 토론을 통해 세계적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권세진- 작가님이 직접 강의도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신 과정에서 책 읽는것 외에도 더 세부적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 해볼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나영- 그동안 세계시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의문이 많았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작가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여러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

댓글 추가

대건고(모의유엔-1)

조성현: 책을 읽고 생겼던 의문에 답이 되었고, 제 행동의 의심에 확신이 생기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생각만 했지 어떤 행동을 해야할 지 잘 몰랐는데 그걸 잘 알게되었고 여러가지 종류의 세계시민이 되기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동 노동착취에 대해선 나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착취당한다는 것에도 되게 숙연해졌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야하는 행동의 답은 나왔고 이제 실행에 옮겨야겠습니다.
장현진: 이번 기회로 내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작가님에게 직접 답을 들을수있어서 매우 뜻 깊었던거같고 이런 기회에 참여하길 매우 잘한거같다고 느끼고 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가할거같다

0

100자 소감문

강화여고(담장)

고은서

일년 306일 중 여러 세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기념일로 정해둔 날이 이렇게까지 많은줄 몰랐고 책을 읽음으로써 세계가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을 읽는거 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책에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읽은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나의 생각을 확장 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세계시민이라는 단어가 맘에 제일 다가왔다 내가 사는작은 공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의 생활을 되돌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예진

책을 읽고나서 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작가 선생님과의 만남도 가지고 직접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채원

책을 읽고 여러 질문을 통해 깊이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된것같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조금 생소하기도 했지만 여러 학교 동아리들의 질문과 작가님의 답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시간이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 된 것 같다.

한지유

책을 읽는것에서 그치지않고 질문하며 답변받는 시간을 통해 제가 사회문제에 무지했다는 것과 이것을 해결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알려주신대로 지구인들이 작은일부터 하나씩 실천해나가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더 살기좋은 지구를 만들수있다고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오늘 배운내용을 친구들에게 알려 주려고합니다.

계양고등학교(우리는 3반)

김민석

책을 읽으면서 생겼었던 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받게 되어서 좋았고, 평소 아무생각없이 지나쳤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되는 계기가 되었다.이를 통해 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직접 참여하게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김선규

평소에 눈 여겨보지않았던 의문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알게되어 좋았다. 세계를 바꾸기 위해 내가 먼저 시작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되었습니다.

김현일

저희는 지금까지 어려운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안락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알고는 있었으나 모른채했던 여러가지 세계의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노동에 관해서는 저와 또래, 혹은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 저도 해보지 못한 심한 강도의 노동을 했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이제부터라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약한 힘을 보태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희

평소에 교과서에서 배운 세계화에 관한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관한 문제들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기회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명신여고(토읽반)

김나영

이 책을 읽고 난생 처음 알게된 기념일과 각종 세계의 문제점 등을 알게 되었다. 쉽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부터 처음 접하게 되어 새로웠던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작가가 작성한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파트는 '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였다. 다큐멘터리나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에서 책에서 나온 유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볼 때 느꼈던 안타까움은 딱 그 순간에만 존재할 뿐 오래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제일 반성을 많이하고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부분이었다. 평소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나는 책을 읽으면서 나의 개인적인 인식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는 산산조각이 났다.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정책이 있었을뿐더러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많아서 그렇게 느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 책은 이런 문제를 알고도 개선하지 않는 정부(나라)를 비판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다. 나는 계속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내 시점으로 읽었을 때 느꼈다. '아, 나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채 살아간 국민들 중 하나일 뿐이구나..'
하루 아침에 이런 세상이 개선되는 건 어렵다. 하지만 작가가 말했듯이 내가 바뀌면 오늘이 바뀌고, 오늘이 바뀌면 내일이 바뀐다고 한다. 하루빨리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

김효민

이 책은 표지에서부터 여러 세계 기념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지에 내가 알고 있던 세계 기념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부분에서 나는 '내가 사회에 많이 무관심하구나.', '나는 세계 시민의 '세' 자도 만족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가 사회에 대해, 세계에 대해 아직 제대로 아는 것이 없으니 이번 독서 토론 기회를 통해 사회에 대한 성숙한 생각을 지니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세계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책에도 나와 있듯이, 환경 보존은 우리가 꼭 해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차별받고 있을 누군가들을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마지막 챕터에서 나오는 '서명 한 장이 4,000달러의 값어치를 한 셈이다.'라는 부분을 보며, 나도 서명 사이트에 서명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한 책을 가지고 내 친구들과, 선생님과, 다른 학교 학생들과, 또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즐거웠다.

송현서

처음 책 표지를 보았을 때 책 안에 세계의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 각 날짜와 그 날짜에 해당하는 날이 써있는데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같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날과 달라 책 표지를 통해 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이 책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와 식량 부족 문제와 같이 평소 알고 있던 문제도, 여성 인권과 같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되뇌어 볼 수 있었다. 또 그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문제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처 모습과 제도를 비교하며 또다른 좋은 제도가 있는지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환경 문제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문제를 파악하여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끔한다. 나는 이 책에 나와있는 각 날들을 몰랐는데, 각 날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 문제를 통해 이 날들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우리나라가 환경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는 더 발전 시키고, 정당하지 않은 제도는 비판하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내가 생각한 실천 방안들 중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기로 다짐하였다.

신지솔

나는 <오늘부터 나는 세게 시민 입니다>를 읽고,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하는 부분들을 세계 문제에 대한 다른 책들처럼 강제적으로 알려주기 보다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환경이나 세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려주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더욱 꼭 실천을 통해 지켜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다양한 기념일과 몰랐던 사례들에 대해서도 알게되어 나를 세계 시민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책이 되었던 것 같다.

김예랑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세계시민이란 단어를 보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는 달리 더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세계시민이란 단어가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의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기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작가님이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윤리적인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끝날때마다 에이즈와 관련된 상품과 같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주거나 주제가 담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것을 알려주어서 좋았다.

부개고(세바청)

하지운

작가를 책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온라인으로나마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었다. 세계적인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것들을 신경써야 하는지, 어떤 시각이 있는지 등을 짚어주셔서 이미 확신을 가진 세계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온라인이라 어색한 것도 불편했던 것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남석민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 입니다>를 읽으며 작가님이 책을 쓰실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번에 토론광장을 하면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단체에서 일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저한테 지금 세계에 어떤 문제가 만연해 있고 우리지구촌을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같습니다.작가님처럼 저도 꼭 여러나라에 존재하는 아동노동문제,환경문제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질문을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평소 잘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에대해 생각해보고 책의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책 외부의 상황까지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 질문에 작가님이 해주신 대답을 들어보면서 책에대해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고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세계적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등해야하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책 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이야기나 프로젝트 등 여러 이야기를 통해 내가 앞으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여러 친구들의 생각과 질문들을 들으면서 한 주제에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서 제 견해를 더욱 넓힐 수 있게되었습니다. 좋은 책으로 유익한 토론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승주

처음하는 토론 광장이었는데 작가님과 다른 학교 학생들과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재미있고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소개를 할때 여러 직업을 가지셨다는 부분에서 신기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ppt와 화상통화를 열심히 준비하신 선생님들도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토론 광장이 연기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책 내용에서 오래동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여행 이야기"에서 몰디브의 역사와 히말라야를 짊어진 사람들 이야기는 나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 광장을 해보면서 나 스스로 세계시민이 되려면 더욱 노력해야한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난 상황으로 토론광장에 참여하여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평여고(호모쿵푸스)

황세정

어릴 적에는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을 행하려 노력했었는데, 해마다 커가면서 제 자신에 일에만 신경쓰기 바빠 세계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작가님의 책을 여러번 읽고 잊고 살았던 세

계 시민 의식을 다시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문제를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책에서, 강연에서 말씀해주신 항상 내용 마음 속에 담아두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의미 깊은 책 써주시고 강연까지 준비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윤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점이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책을 읽고 작가님의 강의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있던 문제부터 잘 알지 못했던 문제까지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잘 알게 되기도 하였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까지 듣게 되어서 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내용이 더욱 깊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해 단순히 이러한 해결방법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에 대해서만 고민했는데, 단지 그것뿐만이 아닌 더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하고 더 넓은 상황과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과연 이런 작은 방법으로 뭔가가 달라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작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승아

코로나 19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살짝 아쉬었지만 작가님과 선생님들께서 노력해주시고 다른 학교 친구들 모두 협조하여 오늘의 인문학 토론 광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식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 생긴다는 것도 알았고 막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학우분들 수고하셨고 힘써주신 선생님들과 작가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원

책을 읽고 책에 관해궁금했던 점 또는 더 확장시키고 싶은 지식들에 관해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뜻깊은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작가님과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과연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작가님 덕분에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 같고,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저는 작가님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평여고(책으로 세상 읽기)

김도연

인문학 독서 토론 광장을 통해 궁금했던 세계문제와 해결방법 등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들을 수 있었고, 새롭게 배운 점들이 많아 좋았다. 우리학교에서도 환경보존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학교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학교문제를 알아보아야겠다. 성평등과 같은 다루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편견이나 혐오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세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나 먼저 실천하고 노력해야겠다.

한소영

세계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방법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단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나며 생기는 재활용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고 우리 집이나 우리 반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업사이클링 회사에서 만든 쓰레기자판기의 존재도 처음 알게 되어서 직접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이 되는 길이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두의 관심을 통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주제를 접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효선

에이즈 문제, 성평등 문제, 아동노동 문제 등 여러 지구적 문제들과 문제의 원인, 문제가 되는 이유 등을 책으로 읽고 토론하다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문제가 많았고 해결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경제발전과 환경 보존 중 어느가치를 더 우선시해야하는지, 인권과 경제발전 중 어느가치를 더 우선시해야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SDGs가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2030년에는 변화된 지구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계기로 저희 동아리도 학급 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주제를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입니다. 프로젝트가 확장되고 전세계인이 세계 시민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세계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윤리적 소비를 하고 캠페인 참여를 열심히 해서 꼭 세계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민

세계 문제에 대하여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활동들을 통하여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라는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친구들에 다양한 생각들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 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세계 문제들에 대해 알아가고 내가 지금 세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추후에 내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캠페인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였고 앞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숭덕여고(씨리얼)

임진송

세계시민으로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다양한 세계 문제에 대한 확답을 얻을 수 있어 굉장히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현

기후변화나 성평등처럼 미디어매체에서 주로 다뤘던 주제들을 제외하면 세계적 이슈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세계시민 토론을 통해 세계적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권세진

작가님이 직접 강의도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신 과정에서 책 읽는것 외에도 더 세부적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 해볼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나영

그동안 세계시민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의문이 많았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작가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여러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명여고(신명지구인)

김혜민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나 하나가 이렇게 한다고해서 뭐가 바뀌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랬던 나의 생각들은 이 책에 나오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보고 아, 나부터 시작해야 미래가 바뀌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변하였다. 내가 생각했던 세계는 좁은 세계였구나 라며 반성도 했던 것 같다. 또한 사회적 문제들의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닌 그 뒷 면까지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흥을 못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귀찮다며 세계시민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이 한 명의 세계시민을 양성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나는 오늘부터 세계시민입니다!

임수현

온라인으로 하는 인문학토론광장이라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즐거웠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작가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와 닿았고, 세계시민이 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 질문하는걸 보고 '나는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책을 더 꼼꼼히 읽고 심화적인 질문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활동을 두시간밖에 못 해서 아쉽고,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유익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최민경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 · 사회 문제에 대해 먼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일상에서 놓쳤던 사회문제와 몰랐던 국제문제를 알게 되면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되고 사회 문제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작가님이 언급한 아동 노동 문제와 성평등 문제가 가장 인상 깊었다. 작가님의 답변 대부분이 우리가 폭넓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 해주셨다. 먼저 아동 노동 문제를 합법화하자 · 불법화하자를 따지기 전에 그들의 부모님의 직장에서 생활비를 보장 받으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답변과 성평등 문제를 바라볼 때는 남여가 분리 되는 것이 아닌 그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답변을 듣고 이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좁았던 시각을 반성하게 되었다. 세계적 문제들을 다른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보통 책을 읽고 책을 쓴 저자와 직접 대화를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 기회가 감사하고 뜻 깊었다.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질문들이 나와서 내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먼저 우리 학급부터 바뀌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해시태그 첼린지를 이용해 급식 비우기 활동을 계획 중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우리에게는 태풍으로 온다' 말 처럼 비

록 이 활동이 작아보여도 내가 속해있는 학급에서 학교 주변학교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며 다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발전하는 기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나 혼자라는 생각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아는 사람인 내가 알려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

허지은

코로나로 인해 작가님과 다른 학교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하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라는 말이 좀 더 많이 들리는데요 나부터 한다고 뭐가 바뀔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나의 가치관 하나로 한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작가님과 다른 학교 친구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뭔가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또 질문을 갖게 되고 또 다른 해결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꿈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세계시민으로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책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송고(리케이온)

김민성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 세계적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으로만 바라봐왔었는데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들을 봄으로써 그 동안의 시각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있음을 느꼈고 이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곽동준

책을 읽으면서 알고 있었던 세계의 문제들이나 더욱 알고싶었던 여러 소식에 대해 작가님과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이번 토론활동을 통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면모를 기를 수 있는 여러 지식과 생각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재윤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사회적 이슈를 이번 책을 읽으며 경각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의응답 시간에 작가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셔서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 하나라도 세계시민의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김도엽

요번 기회를 통하여 평소 접하던 이슈들 또는 알지 못했던 이슈들에 대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해석,생각 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고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작가님과도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세계 시민으로서 한단계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인천남고(젠가)

정지훈

이번에 처음으로 토론 광장을 와봤는데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여서 조금 아깝고 다음엔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평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쁘고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였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세계시민 세계시민들 모두 모두 파이팅!!!!!!!!!!!!!!

이승범

처음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해 봤는데 매우 재미있었고 책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해 보고싶고 작가님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도 읽었었는데 같은 작가님이라는것을 방금 알았습니다 ㅎㅎ 앞으로도 작품 활동이나 여러가지 하시는 일들 힘내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유동옥

처음으로 인문학토론광장을 해보았는데 다음에는 온라인 토론이 아닌 오프라인 토론으로 만나보고 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도 만나서 좋았고 여러 학교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인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세계시민입니다 ㅎㅇㅌ!

김도빈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를 여러 학생들과 읽고 비슷한 주제로 작가님의 강의를 들은 후, 우리 학교 친구들과 토의를 하니까 독서 후 궁금했던 것, 작가와 친구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온라인이라는 조건에서도 여러 친구들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부터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디다!

대건고(모의유엔-1)

조성현

책을 읽고 생겼던 의문에 답이 되었고, 제 행동의 의심에 확신이 생기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생각만 했지 어떤 행동을 해야할 지 잘 몰랐는데 그걸 잘 알게되었고 여러가지 종류의 세계시민이 되기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동 노동착취에 대해선 나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착취당한다는 것에도 되게 숙연해졌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야하는 행동의 답은 나왔고 이제 실행에 옮겨야겠습니다.

장현진

이번 기회로 내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작가님에게 직접 답을 들을수있어서 매우 뜻 깊었던거같고 이런 기회에 참여하길 매우 잘한거같다고 느끼고 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가할거같다

대건고(모의유엔-2)

김병규

책을 읽다보면 당연하게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님께 직접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여고(직모마)

권예준

진정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였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계를 위한 노력이 나 하나 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작가님은 그게 물론 세계를 위한 행동이지만 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신게 인상적이였습니다.

김예원

이번 시간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며 궁금했던 점이 해결되었고 세계시민에 대해 조금 더 깊이있게 생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나영

이번 세계시민 온라인 토론광장으로 조금 더 성숙한 세계시민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가님과 질문 질의응답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고있습니다 . 이번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라스틱 재사용 부분이 인상깊었는데요 , 나중에 교사가 되서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자그만한 곳부터 실천해 나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론 더욱더 성숙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재윤

세계시민에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정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뚜렷한 정의를 알게 되어 뜻 깊게 느껴집니다!!!!

인천여고(세바시)

손민서

인문학 토론 광장을 통해 우리가 책을 읽으며 고민했던 문제의 질문에 대한 작가님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했고, 재활용 회사인 '수퍼빈'이 만든 자판기도 새롭게 알게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유진

오늘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들으며 관련 생각들에 더욱 심화되게되는 계기 되었으며 나 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같이 고민하는 기분이 들어 하나되는 기분을 느꼈고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겨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같은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가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앞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 어떻게 행동해야할 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지금 맡은 일로도 바쁘다고 세계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접하고 고민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에 한 문제정도 그문제에 대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 하나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세계시민이되기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라수연

경제적 가치와 인권이 충돌할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듣기 전에는 나 자신만 세계시민적인 행동을 한다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종고(나비야)

서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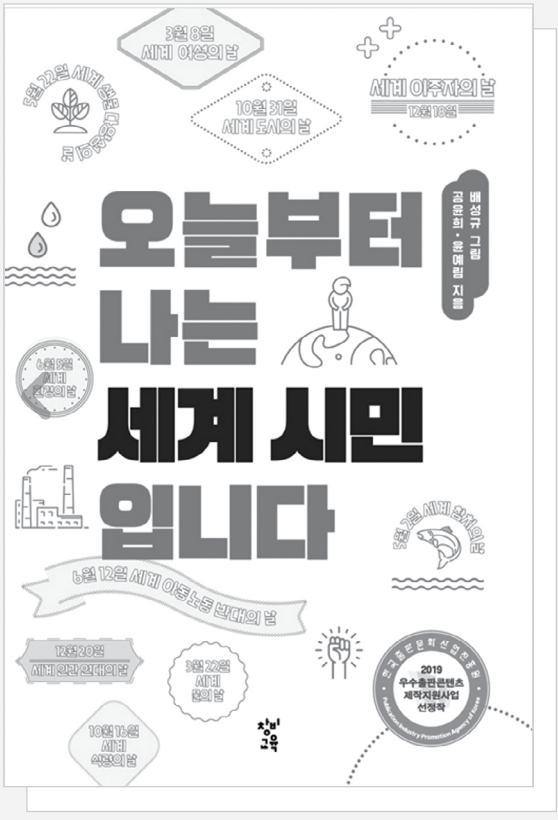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윤리적인 소비자인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세계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면서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접하면서 모든 사람의 인격권이 존중되고, 환경보호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는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는 꿈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계시민의식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다짐을 했던 것 같다.

해송고(앙상불)

우선, 관심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법과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목표에 알게되어서 뜻깊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직접만나보고 싶습니다!

>>> 2020 제7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저자 후기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의 작가 공윤희입니다. 비록 비대면이었지만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에게도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토론 질문을 보니 그간 책을 읽고 얼마나 열심히 고민 했을지가 느껴졌습니다.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면서 저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처럼 세상에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멋진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윤희 드림.

>>> 2020 제7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운영위원 후기 <<<

산곡여자중학교 교사 **박진희**

몇 년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인천청소년인문학토론광장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토론을 할 수 없고, 예산도 없어졌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행사가 취소될 거라고 생각했다. '올해는 쉬겠구나' 라는 안도의 생각도 했다.

하지만 "취소란 없다", "안된다라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자"라는 제안이 "온라인 청소년인문학토론광장"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냈다. 모일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고 계획이 수정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서 그날의 행사를 만들어냈다.

학생들은 책을 열심히 읽었고, 운영하는 샘들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행사 준비를 했고, 좋은 강의와 따뜻한 질문과 현명한 답변이 이어진 훌륭한 토론행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학생들에게는 방식만 바뀐 별다를 게 없는 토론광장이었을지 모르나 운영자로 참여한 나에게는 너무나 큰 깨우침을 준 행사였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송윤선 검암중학교 사서교사

8월에 다같이 모여 왁자지껄 토론하고 간식먹고, 작가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10월에서 결국 11월까지 토론광장이 늦춰져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인천청소년 인문학토론광장의 시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각 학교에서 참여해 준 학생여러분과 학생들을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인사 드리고, 우리 운영진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은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무처장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고, 토론하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찡그리기도 하면서,
토론장의 공기와 온도를 체감하고, 몸짓으로 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통해야 하고, 생각을 끊임없이
나눠야 합니다.
올해 7회째 맞이하는 인문학토론광장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한된 조건에서도 참여하고, 토론을 한 학생들과 지도한 선생님들, 저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계획과 내용을 채워주신 시교육청 주무관님을 비롯하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멋지게 진행하지구요~

이장우 박문여고 교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세상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볼 줄 알게 하는 것, 그러는 가운데 눈여겨 보지않던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눈을 갖게 해주는 것. 청소년 인문학토론광장은 그런 것을 배우게 한다.

정남림 주무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변해버렸습니다. 토론광장도 올해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한 차례의 연기를 거듭하며 어렵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진도 처음 접하게 된 온라인 형식이라 많은 고민과 점검을 거쳤음에도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행사 당일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되었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참가했던 학생들도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원래의 토론광장이 될 것이라 믿으며, 한 걸음 나아가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열린 형식의 토론광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고운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총무팀장

이번 토론광장 준비하면서 처음 직면한 비대면 상황을 어쩌나하는 걱정, 지나온 토론광장을 떠올리며 그때와 같이 하고싶은 욕심, 어떤 방식이어야 참가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충분한 토론, 소통을 좀 더 이끌어 낼 수 있을까했던 고민들이 온라인 시작과 함께 날아가버렸습니다. 아쉬운 점은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게 고민하고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한 토론광장 운영위원들 참 멋짐니다. 멀리 와주신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나 같이 한 참가자들, 학생들이 너무나 빛난 하루였습니다. 어떤 방식이던 소통하려는 자세가 되어있어야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대면이었어도 감사함을 느꼈던 소통과 공유의 하루였습니다.

한윤지 인천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안녕하세요, 인천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한윤지입니다. 우선 교사 첫 해에 의미있는 행사에 참여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내년이 기대됩니다.

저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원격토론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재미있게 읽고, 질문과 자체토론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도 좋은 주제를 선정하고, 도서를 정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끝없이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운영위원 <<<

소 속	직 위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독서진흥팀장	정경애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주무관	정남림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주무관	김효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교사	최현숙
북구도서관	주무관	박근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무처장	이은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총무팀장	한고운
인천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장(동암중)	김명순
인천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사(산곡여중)	박진희
인천책놀이교사모임 책친구	사서교사(구산중)	허우정
인천책놀이교사모임 책친구	교사(박문여고)	이장우
인천책놀이교사모임 책친구	사서교사(검암중)	송윤선
인천책놀이교사모임 책친구	교사(신명여고)	안미림
인천국어교사모임	교사(인천산곡고)	임성빈
-	사서교사(인천여고)	한윤지
-	교사(과학예술영재학교)	김진영

>>> 주관 단체 소개 <<<

인천국어교사모임

인천국어교사모임은 사단법인 전국국어교사모임에 가입하신 선생님들 중 인천에 계신 선생님들이 꾸려나가고 있는 모임입니다. 현재 선생님 70분이 정회원으로, 49분이 자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회원 선생님들 가운데 연구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 학교에서의 생활과 국어 수업에 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나은 국어 수업을 위한 탐구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연구 소모임은 '고등학교 배움의 공동체 모임'과 '문학 작품 학습 활동 연구 모임', 이렇게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모임 주관으로 또는 경기국어교사모임과 서울국어교사모임과 함께 교사 연수를 기획하여 실시하기도 했는데, 올해 2월 동국대에서 수도권 지역 연합 연수를 열었습니다. 소모임이나 연수 외에도 국어 교사로서 작품과 관련된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고 회원 사이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당일치기 답사를 갔다오기도 했는데, 작년에는 '해방 70주년 서울 남산을 통해 본 식민과 해방'이란 주제로 서울 남촌과 해방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루쉰이 쓴 단편 소설 〈고향〉 맨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지상의 길과 같다. 사실은,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자 길이 된 것이다.' 사람 다니는 길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함께 다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천국어교사모임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은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천에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중 · 고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이다. 2000년 5월에 첫모임을 했으니 올해 17년째로 접어든다.

2000년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마다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던 때로, 도서관 운영의 비전문가였던 교사들이 겪는 문제들을 모임을 통해 해결해 나갔다. 지금도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일반 교과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격주마다 모여 학교도서관 운영, 도서부 활동, 도서관 문화제, 독서토론 모임, 독서 교육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아내고 있다. 15여명 정도의 인원이 정기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특별행사가 있을 때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다.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꿈이 있다. 지식과 정보가 가득한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찾아가도록 돕고 싶다.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고 있다. 독서는 지식과 정보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으므로 학교 교육의 중심에 학교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책 읽는 학생들로 가득 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인천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인천책놀이교사모임 책친구

책친구는 2015년 모두가 행복한 책읽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작은 공부 모임입니다.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매주 모여 책놀이 콘텐츠를 연구하고 공유하면서 책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연수, 워크숍, 학교 수업 등 다양한 공간에서 책놀이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책친구의 꿈은 소박합니다. 아이들이 책과 놀이를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 나누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지역 소중한 민주화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수집 · 정리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민주시민교육, 청년 · 청소년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현장탐방, 인문학토론광장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성숙한 시민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주/요/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수집과 보존, 전시, 편찬 사업

인천민주화운동가 이야기

민주화운동 계승과 희생자 추모 사업

youtube 생중계

청소년 민주주의 체험마당(민주로드)

인천5.3민주항쟁 터. 옛 시민회관 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UCC공모전 출품작

인천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 기증받습니다.

1. 소식지, 기관지, 스크랩기사, 유인물, 팜플렛, 호소문 등
2. 사진, 필름, 포스터, 그림, 대자보 등
3. 영상, 비디오테잎, 노래테잎, CD 등
4. 깃발, 현수막, 머리띠, 현판, 단체 맞춤옷, 뱃지, 걸개그림, 당시 사용했던 가구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8, 402호(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전화 032-862-5353 FAX 032-862-5352 이메일 idph@hanmail.net www.idph.kr